# 고부가화의 함정

화학제품의 고부가가치화는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화학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용제품은 수익성이 매우 낮고 고부가가치 특수제품은 수익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화학기업들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R&D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범용제품은 공급과잉이 심화되면 가격이 폭락해 수익은커녕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우나 특수제품은 생산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과잉 우려가 거의 없고 가격폭락을 우려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중국도 최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개발한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10만명에 달하는 기술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바이오, 신소재 등 첨단기술의 산업 접목이 목표로 국제시장에서 우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분야를 육성해 글로벌 주도권을 잡겠다는 <후반 역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1461억위안(약 26조원)을 기술혁신에 투자했고 2010년에는 1500억위안 이상을 투자하며, 2010년까지 산업계에 10만명의 기술자를 파견해 기술의 상품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구기관에서 혁신기술을 개발한 과학자들을 임시 파견해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일명 <상하이 모델>을 만들어 모든 기술을 제품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술혁신을 위해 외국에서 유학한 뒤 귀국하는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기술(IT)이나 생명공학, 금융 분야의 우수 인재가 돌아와 창업하면 최고 500만위안까지 대출해주고 100만위안의 정착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핵심기술을 보유하면 취업회사의 지분도 20% 이상 취득을 허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포브스는 중국이 <Made in China>에서 <Invented in China>로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막대한 자금과 10만명의 기술인력을 투입해 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배경은 충분이 납득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술수준이 떨어져 저가 수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안전성은 물론 유해성이 걸러지지 않아 수출대상국들의 불만이 날로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고부가화 전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산업발전과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첨단기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한국의 기술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며 기초과학은 오히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중국이 고부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따라잡게 됨은 물론 바이오 · 생명공학 등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첨단기술을 개발해 고부가화를 달성했을 때 과연 팔아먹을 시장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일본 와세다대학의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는 최근 상의가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세계경제 위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구도 재편과 한국의 대응> 주제 발표를 통해 " 일본은 첨단기술을 개발해 고부가화하는데 성공했지만 미국과 서유럽 경기가 죽을 쓰는 바람에 수출이 부진해 무역수지가 엉망 "이라며 " 한국도 성장국들을 대상으로 범용제품을 수출해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지만 환율효과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 이라고 충고했다.
고부가화에 성공했으면서도 경기침체로 수출하지 못하는 애로와 함께 범용 위주 수출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범용과 고부가가치화는 칼의 양면과 같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화학제품도 마찬가지로 범용 위주로 생산하면 중동의 신증설과 같은 공급과잉 충격에 매우 취약하게 되고, 특수제품 위주로 생산하면 수익성은 높일 수 있으나 판매에 한계를 지어 관련산업이 불황에 빠지면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범용제품과 특수제품 생산비율은 일반적으로 7대3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된다.

<화학저널 2009/11/2>